

# 世界的 趨勢에서 본 韓國圖書館學의 一側面에 대한 論考

金 世 翊\*

## 〈目 次〉

- |                               |                         |
|-------------------------------|-------------------------|
| I. 目的과 意義                     | III. 英·美 圖書館 專門職 養成의 推移 |
| II. 韓國 圖書館人들의 苦悶              | A. 英 國                  |
| A. 專門職에 대한 懷疑                 | B. 美 國                  |
| B. 낮은 待遇에 대한 不滿               | IV. 韓國의 圖書館教育의 坐標       |
| C. 낮은 社會的地位에 대한  불안           | A. 대학 학부과정의 커리큘럼        |
| D. 發展의 機會가 制限되어 있는데<br>대한  불안 | B. 原則과 개요               |

### I. 目的과 意義

1887년 Melvil Dewey가 Columbia 대학에 The School of Library Economy를 설치한 것을 대학과정에서 도서관학이 하나의 과학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도서관학의 역사는 이제 겨우 85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후 오늘 날까지 미국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발전과 변모를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렀거니와 특히 최근에 크게 이슈로 등장된 정보과학의 문제도 제나름대로 전황 소화하여 학교이름도 대체로 「도서관 정보과학 학과(교)」라고 할 만큼 되었다.

한편 한국의 경우는 1946년 4월1일에 국립도서관(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립도서관학교가 당시의 국립도서관에 근무하던 박봉석 이재욱 씨등의 노력에 의하여 발족한 것을 우리 나라 최초의 도서관 전문적 양성기관이라고 본다면 그 역사는 이제 겨우 25년에 지나지 않는다. 이

\* 梨花女子大學校 圖書館學科 副教授

학교가 1950년 5월에 5회에 걸친 졸업생 77명을 배출하고 6·25동란으로 중단된채 영영 소멸되어 버렸고 다시 1957년에 연세대학에 설치된 대학과정의 도서관학과와 대학원 고급사서과정(통칭 한국도서관학회 현 한국도서관학당) 그리고 사서교사과정이 피바디 사범대학 교수단에 의하여 개설된 것을 실질적인 한국에 있어서의 도서관 전문직 양성기관으로 본다면 그 역사는 14년에 지나지 않는다.<sup>1)</sup> 그 동안 연세 이화 중앙 성균관 각 대학 도서관학과 졸업생을 비롯하여 연세 성균관 대학에 부설된 1년과정 그리고 사서교사과정 그리고 각종 단기강습에 의해 정사서 준사서 사서교사라는 법적 자격을 가지고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도서관인들이 각 도서관 또는 그와 유사한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초창기의 흥분과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열성적인 정열은 지난 10여년 동안 스스로를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전국적으로 제 나름의 전진을 거듭하였다. 주의깊게 살펴 보면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엽까지 우리나라 도서관계와 도서관학계는 비상한 고기압속에 있었고 어떤 면에서 한국 도서관의 하나의 루네상스적인 시기였다. 그 시기에 4개대학의 도서관학과의 설치와 그 내용충실을 기하였고 한국 도서관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서관법도 내용적으로는 미비한 대로 통과됨으로써 사서의 전문성과 그 자격이 법적으로 보장 받게 되었고 학교도서관의 보급 대학도서관의 신축 증축 그리고 많은 도서관인들의 국제적 교류가 있었고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국회도서관에서 활발한 서지사업이 이루어질 터전을 마련하고 도서관협회의 발전 등의 일련의 루네상스적인 활동이 한국의 도서관계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점차로 우리의 도서관에 대하여 또 도서관 전문직 양성의 이념이나 방법에 대하여 조금씩 회의를 품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를 맞이하여 이와 같은 회의는 결정적 단계에 이른 감이 든다.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任鍾淳, 圖書館學概論,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9, p. 70-71.

첫째로 도서관 기능에 대한 것인데 외형적인 활발한 움직임에 비하여 우리 나라 도서관의 사회적기능이나 그 봉사的内容이 아직도 대체로 전 근대적인 상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장치<sup>2)</sup>로서의 도서관의 위치를 정립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반성이 있다.

한나라 도서관의 기간을 이루는 공공도서관은 그 전국적 조직에 있어서나 도서관자체의 세력이 너무나 미약하여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구실을 담당하기에는 아직도 요연하며 대학도서관에서도 교수나 학생의 연구활동에 직접적으로 바람직한 상태로 공헌하지는 못하고 학교도서관도 그 외형적인 번영상에 비하면 그 내용이 빈약하고 특수전문도서관은 근래 많은 보급을 보고 있으나 업무나 생산에 직접적으로 공헌하는 도가 아직도 미약하기만 하다. 이와 같은 현상에는 직접적 간접적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세계도서관 활동의 추세로 볼 때 한국의 도서관의 현실은 결코 낙관적이 못된다. 이리하여 한국의 도서관에 대하여 두개의 상반되는 견해가 생기게 된다. 즉 지난 10여년동안에 다른 개발도상의 국가에서는 그 예를 볼 수 없을만큼 한국의 도서관은 비약적 발전을 거듭했다는 견해를 피력하는 외국의 전문가들도 많은 반면에 외국의 도서관을 돌아 보고 온 한국의 많은 도서관인들은 한국의 도서관의 현실은 암담하다는 비판론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이러한 견해는 압도적이다. 한 나라의 도서관을 발전시키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인적자원 이다. 즉 도서관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도서관 전문직——이 문제가 될 것이다. 한국의 도서관을 명실공히 「사회적장치」로 정립시키는데에는 유능하고 활동적인 도서관인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이 소론에서 한국도서관인들의 현실을 분석하고 선진 여러 나라의 전문직양성방법을 고찰비교함으로써 한국의 도서

2. Butler, Pierce, *An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3. p. 9.

관전문직양성의 바람직한 이정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 II. 韓國 圖書館人들의 苦悶

한국의 도서관인들의 잠재적 불만감과 장래에 대한 불안의식은 많은 도서관인들로 하여금 다른 직종으로 옮겨 가는 경향을 나타나게 되었고 현직자라 할지라도 기회만 있으면 전직을 바라는 수가 상당히 많다.<sup>3)</sup>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는 한 한국의 도서관의 발전을 기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도서관에는 가도 오도 못하는 사람들로만 가득찬다면 도서관의 발전은 결코 기대할 수 없고 도서관문화의 개화는 백년하청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한국의 도서관인의 많은 수가 이와 같은 불만감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하느냐는 것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A. 전문직에 대한 회의

도서관인이 의사나 변호사 또는 교육자와 같이 전문직이라는 것은 1963년에 국회를 통과 공포된 도서관법에 의하여 법적으로도 확정되었거니와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철저하게 들어온 바이지만 실제로 도서관 현장에 나와서 근무하면서 그가 하는 일이 정말 전문적인 자격을 요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된다. 일선 도서관인들 뿐만 아니라 관장이나 다른 관리직이 볼 때 일반적으로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과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이른바 전문직과 무엇이 그렇게 크게 다른 것이 있는가 하는 의문도 가지게 된다. 고등학교나 일반대학 졸업자들에게 약간의 기본 오리엔테이션과 다소의 경험을 가지게 할 때 도서관학과와 졸업생과 같거나 어떤 점에서는 그가 대학에서 습득한 다른 주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유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다. 이것은 한국의 도서관의 봉사내용이 아직도 너무 저조하고 도서관업무가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데에서 오는 면도 있기는 하나 어쨌든 현실적으

3. 韓國圖書館實態調查.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1.

로 관리자나 도서관인 자신이 전문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의식이나 관념으로서는 충분히 전문직에 대한 자각과 긍지를 가지면서도 일선 도서관에서 근무하게 될 때 그와 같은 의문을 가지게 되는 듯하다. 여자의 경우는 대개가 잠정적인 직장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될수 없을지라도 남자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남아 일생의 직업으로서 만족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서 적지 않은 수가 도서관 이외의 직종에 옮겨 가게 되고 또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도서관이 그 활동이나 기능면에서 아직도 전근대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전통적이며 소극적인 봉사를 하고 있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고 장차 한국의 도서관이 본궤도에 올라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도서관이 사회적 기능이 확대될 때 이러한 경향은 점차로 해소 될지라도 현단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일선도서관인에게 적지 않은 실망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한국의 도서관인의 구성이 다양 잡다하여 4년간의 대학 정규과정을 나온 사람이나 불과 수주일의 강습을 이수한 사람이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전연 도서관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다 같은 일을 하거나 같은 수준의 보수와 대우를 받을 때 이러한 회의는 더욱 심각해진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사정이 전연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도서관 전문직의 개념이 뚜렷하게 서 있지 못한 한국의 경우 이 문제는 절실한 숙제로 남게 된다.

#### B. 낮은 대우에 대한 불만

도서관인들이 일반 봉급생활자 보다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직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의사나 법관이나 교육자와 같이 전문직인데도 불구하고 전문직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일반직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데에 대한 불만이다. 한국의 경우 비단 법관이나 의사 같지 않더라도 어지간한 기술의 소유자는 모두 직무수당을 받고 있는데 도서관인의 경우 그것이 전면적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도서관의 성격상 승진의 기회가 극히 제한된 경우에 이 점은 더욱 절실한

고민이 되고 있다. 몇해전부터 국립국회도서관과 그리고 작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의 전문직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 점차로 이 문제도 해결될 추세에 있기는 하나 이것이 일반화 되기에는 아직도 많은 세월이 걸릴 것 같다. 도서관 협회에서 거의 해마다 총회와 대회의 결의에 따라 당국에 건의하지만 이것이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도서관과 도서관인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인식의 회박에서 오는 것이다.

### C. 낮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불안

한국의 도서관인의 고민의 하나는 도서관인의 사회적지위가 낮은 데에 있다. 도서관인은 사회교육의 에이젠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어서의 도서관인들의 사회적지위는 엄청나게 낮은 편이다. 영국을 비롯한 구라파 여러 나라의 경우와 비교할 때 이 사실도 한국의 도서관인들을 괴롭히는 것이다. 물질적인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할 때 사회적 지위마저 낮으면 그들의 좌절감이 커질수 밖에 없다. 이것은 한국사회에서 도서관인들이 직업계층으로서 확정되어 있지 못한데에 그 원인이 있고 그들의 활동이 아직도 사회의 절실한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데 있다. 이 문제는 한국 도서관의 발전과 비례하는 일이지는 하나 현시점에서 역시 도서관인들의 고민이 아닐 수 없다.

### D. 발전(자기성장)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데 대한 불안

공무원법에 의하면 도서관인의 전문직으로서의 관직은 서기관이 최중한계로 되어 있어 그 이상의 승진은 일반 행정직으로 되기 때문에 실제로 도서관인의 발전의 기회는 제한되고 있다. (1971년 부터는 사무관으로 격하)

대학도서관의 경우는 대개가 일반 대학교수가 도서관장직을 담당하는 현실이고 보면 대학에 있어서의 도서관인의 발전도 사서장 파장 정도에서 제한되고 마는 형편이며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일반행정관이 도서관장에 임명되는 실정이며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의 경우도 학교인사의 정규적 루우트에서는 이탈되는 현실이며 특수 전문도서관의 경우

도 대개가 조사부나 총무과장의 관장밑에 있으니 그 지위가 낮고 승진할 기회가 거의 막혀 버린다. 처음 몇해동안 사명감과 의의물 느끼면서 도서관에 정열을 쏟다가도 이런 현실에 부딪힐 때 많은 도서관인들은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 일종의 체념상태가 되거나 마침내 전직을 희망하게 된다.

이외에도 도서관인들이 불만스럽게 여기는 점은 사무량이 많다거나 건강에 좋지 못한 작업조건 등<sup>4)</sup>이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이와 같은 사태는 한국의 도서관인들의 일반적인 고민이라고 분석된다. 도서관인들의 이런 불만은 유독 한국에만 국한될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경우 그 정도가 다른 선진 여러 나라에 비해 훨씬 심각하다. 이러한 현상이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한 한국의 도서관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객관적 원인이 있겠으나 일선에서 근무하는 도서관인들이나 그들을 고용하고 있는 측에서나 다 같이 그들이 받은 전문적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가지게 된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는 도서관전문직 양성의 과정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아 볼 필요를 느낀다.

### Ⅲ. 英·美 圖書館專門職 養成의 推移

#### A. 英 國

세계에서 가장 도서관조직이 발달되고 시민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영국에서는 전문직사서의 사회적 지위도 높고 그 활동도 의욕적이다. 그만큼 전문직도서관인이 되는 길도 다른나라에 비해 용이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영국도서관협회<sup>5)</sup>가 가장 힘을 기우리는 일은 도서관전문

4. Robert S. Burgess 교수의 Syllabus.

5. 1877년 창립되고 정식명은 The Library Association(L.A.)이며 현재 약 15,00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8개의 부회를 가지고 회원은 지부마다 2개의 부회에 속해 있다. 각 부회장은 협회의 이사가 되며 각 지방에 있는 11개의 지부가 있어 각 지부장도 협회의 이사가 된다. Library Association Record (月刊), Library Science Abstracts (季刊), British Humanities Index (季刊과 年刊), Students Handbook (年刊, 협회에서 실시하는 도서관전문직 자격시험을 위한 참고서), Library

직 자격 부여와 유자격자의 지위향상이다. 전문직에 대한 자격을 도서관협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협회가 주는 예는 외국에는 없는 영국 특유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영국도서관협회의 권한이 크며 또한 책임도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비판도 있기는 하나 체계적으로 일관된 원측에서 실시되는 전문직 자격 시험제도에는 그만큼 이로운 면도 있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 영국의 대학과정에서 도서관을 이수하는 것은 London 대학 사범대학내에 있는 도서관학과와 Sheffield 대학의 대학원과정 그리고 최근에 생긴 북아일랜드의 Belfast 대학의 도서관학과와 고등직업전문학교——Manchester College of Technology, Leeds College of Commerce, North Western Polytechnic, Brighton Technical College 등 10개교가 있다.

따라서 영국의 도서관학 교육은 세가지 수준 즉 대학과 대학원에서 그리고 전문학교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이와 같은 학교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졸업하면 전문직자격이 자동적으로 부여되지만 영국에서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도서관학교 졸업생이라 할지라도 협회에서 시행하는 엄격한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전문직으로서의 인정과 자격을 받게 된다. 이런 방법은 따지고 보면 도서관인은 학교교육만으로는 부족하며 실무경험이 필요하다는 영국에서의 도서관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영국에서 도서관 전문직의 자격시험에 응모하는 자격은 이와 같은 도서관학교 졸업생 뿐만 아니라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또는 대학에서 다른 학과를 전공하더라도 도서관 실무경험이 있고 도서관학을 독학한 사람에게도 부여되고 있다. 이런 사람을 위한 참고서로서 매년 협회에서 Student's Hand Book 를 발간하여 도서관학을 독학할 수 있는 길

Association Year Book(年刊)등의 刊行物 외에 많은 圖書館學文獻을 發行하고 있다.



을 마련해 주고 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영국의 도서관학교는 도서관인의 자격을 주기 위한 것보다 영국도서관협회에서 시행하는 전문직자격시험을 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London 대학에 도서관학과가 대학과정으로 설치된 것은 1919년인데 이 당시부터 영국도서관계에서는 도서관교육에 있어서 학교교육을 중시하는 파와 도서관에서의 실무경험을 중시하는 파 사이에 격심한 논쟁이 버러졌고 이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다른 나라와 달리 도서관학교 학생에게도 영국도서관협회의 시험을 치르게 하고 그 시험에 통과했다 해도 전문직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후 1년이상의 도서관전문직으로서의 실무경험을 거쳐야 비로소 자격증이 수여된다. 그러나 대학에서 도서관학을 전공했다는 것에 대한 특전으로서 몇가지 시험이 면제되는 것도 위에서 언급한 미묘한 사정에서 연유되는 것이다. 1898년이래 실시되고 있는 영국도서관협회의 시험제도에 대한 반발이 심하게 대두되고 특히 각 대학도서관학교에서 저항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대학자체에서 전문직사서의 자격시험시행이 허용되었는데 그 시험과목은 영국도서관협회에서 시행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아직도 실질적으로는 도서관학교 졸업생도 이 협회의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결과가 된다. 다시 말해서 London 대학을 비롯한 각 대학 도서관학교의 커리큘럼의 내용이 도서관협회에서 요구하는 시험과목의 내용과 같아질 수 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영국의 경우는 대학에서 주는 학위증보다 도서관협회의 자격증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sup>6)</sup> 협회에서 치루는 자격시험은 3단계가 있고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영국 도서관협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2. 1년이상 인정된 도서관에 근무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3. 대학입학자격증의 소지자라야 한다.

6. 大佐三四五. 圖書館의 展開. 東京, 丸善株式會社, 1954. pp.92-96.

이것은 대학도서관학과 학생이나 졸업생이외의 일반도서관인에 대한 수험자격규정이다.

대학도서관학과 학생들의 수험자격은 대학도서관학교에 재학하고 있다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인정되지만 몇과목의 면제 이외에는 일반도서관인과 같이 이 시험을 치루게 된다. 제1단계의 시험 즉 **Elementary** 또는 **Entrance Examination** 이라고 부르는 시험은 도서관인의 기본적인 소양을 시험하는 것인데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영문학사에 대한 과목이며 그것도 총 6시간의 시험시간중 그 반인 3시간이 영문학사의 시험에 배당되고 있다. 이것은 영국의 도서관전문직의 기본 교양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가 될 것이다. 2단계의 시험은 물론 1단계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치루게 되는데 이것을 **Intermediate** 또는 **Registration Examination** 이라 부른다. 이 2단계의 시험은 분류, 목록을 비롯하여 참고봉사 도서관 조직 관리 서지 등의 도서관 전문기술에 속하는 높은 수준에서 치루게 된다. 난관인 2단계 시험에 합격하고 또한 하나의 외국어시험에 통과될 때 비로소 **ALA**<sup>7)</sup>의 자격이 부여된다. **ALA**의 칭호를 얻은 다음 다시 제2외국어습득을 시작하고 3년간 협회에서 승인된 특정한 도서관에서 근무하여야하며 그때에는 유자격 도서관인으로서의 대우를 받게 된다. 이러한 도서관인은 **Chartered Librarian** 으로서 협회에 등록된다. 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제2외국어를 마스터한 뒤에 최후의 등용문인 **FLA**의 시험을 치루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영문학사의 시험논문이 요구되는데 영문학 전공학도가 겨우 쓸 정도로 높은 수준의 논문을 써야 한다. 그외에 고문서학 등도 높은 교양의 밑받침 없이는 쓸수 없는 문제이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가 하는 것은 수험자중 극소수 만이 합격하는 것을

7. Associate of the Library Association, 영국 도서관인의 자격칭호의 하나이며 이 위에 주어지는 칭호가 **FLA**(Fellow of the Library Association)이다. **ALA**, 특히 **FLA**는 도서관인의 자격뿐만 아니라 영국시민의 자량이며 사회적으로 크게 존경을 받게 된다. 집의 문패나 명함에 **FLA** 아무개라고 쓰여진다.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어려운 난관을 통과해야 비로소 FLA의 칭호가 부여되는데 이것은 도서관인 뿐만 아니라 영국사회에서 큰 명예로 알고 있다. 대학 도서관학과 교수나 각종 도서관장에게는 이 FLA가 필수요건으로 되어 있다. 영국 도서관사회에 이와 같은 칭호가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자격을 주는 곳이 영국도서관협회이기 때문에 영국에서의 도서관인 양성에 도서관협회가 큰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영국의 도서관인 양성에는 몇가지의 특색을 발견할 수 있다.

### 1. ALA, FLA의 칭호

Librarian이란 일반적인 개념 위에 ALA나 FLA같은 권위적인 칭호가 존재한다. 더구나 관장이나 상급관리자에게는 이것이 필수조건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는 점차로 저항을 받고 있기는 하나 전통을 존중하는 영국 국민성과 사회에서의 도서관의 위치와 그 활동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동안 이 제도는 그대로 존속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도서관인이 하나의 전문적 기술자일뿐만 아니라 높은 교양인 그리고 학자적자격의 소유자이기를 바라는 영국의 도서관인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2. 영문학사의 중시경향

도서관인이 자기 나라의 문학사에 정통한다는 것은 Melvil Dewey 이래 기술편중주의의 교육을 시행해온 미국과는 판이한 현상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도서관장서 중에 문학부분이 압도적으로 많다거나 문학부분에 대한 봉사량이 많다는데에 그 원인이 있다기 보다는 일국의 도서관인들은 그 나라의 문학에 대한 지식은 바로 정신사에 대한 뚜렷한 인식과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오랜 역사를 가진 구라파사람들의 도서관인에 대한 보편적 인식에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3. 서지에 대한 지식의 터득

영국에서는 도서관적인 기술보다도 이른 바 book-man이 되는 것이

도서관인의 자격이라고 인정되는 경향이 많다. 쉽게 말해서 문헌에 대한 지식이 갖추어진 연후에 도서관적인 기술이 요구된다는 기본적인 인식이다. 이런 점에 있어서 Melvil Dewey의 도서관학과는 다른 성격을 발견할 수가 있다.

#### 4. 외국어의 중시

도서관의 관리자나 지도적 위치에 있는 도서관인은 적어도 두개의 외국어를 마스터 해야 한다. 외국어를 많이 안다는 것은 외국문헌의 처리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야가 넓고 국제적 감각의 소유자라는 것을 의미하며, 영국에서 이러한 사람이 도서관에서 봉사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더구나 오늘날 학문이나 지식 기술의 범 세계성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던져주는 것이라고 믿어진다.

#### 5. 최근의 경향

위에 언급한 영국의 도서관전문직양성 즉 도서관교육의 특색은 말하자면 전통적인 것이라 할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영국의 그와 같은 방법은 충분히 수궁할 수 있고 또 그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보수적이며 세계도서관학의 방향감각과는 다소 유리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영국자체에 있어서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최근에 와서 도서관의 기능이 복잡 다기해져 가고 도서관의 기계화 정보검색의 세밀화 등의 현상은 영국의 도서관학 교육에 하나의 전환을 요구하게 되었다. 영국에 있어서의 유일한 대학원과정의 도서관 학교인 Sheffield 대학 도서관 학교의 출현과 Belfast의 도서관학교의 개교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응하는 의미에서 영국 도서관학의 전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보과학면에서 이런 경향이 뚜렷하다. 다른 모든 영국의 도서관 학교가 정보과학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고 있지만 특히 Sheffield 대학 도서관학교의 경우는 입학 자격이 대학 학부에서 자연과학을 전공한 자에게 주어지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다른 선진한 나라에서와 같이 정보과학이 도서관학의

주축을 이루게 될 때 과연 종전과 같은 교육방법이 지속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리하여 영국에서는 조심스러운 검토를 가하고 보다 바람직한 도서관학교육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해 나가며 어떤 면에서는 사실상 상당한 변모를 하고 있다. 영국의 좋은 전통과 권위의식은 그대로 보유한채 조심스럽게 미국적인 도서관학의 방법이 도입되고 있는 듯하다. 사실 20세기 초엽부터 오늘날까지 미국과 영국은 도서관학교육에 있어서 가장 많은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기도 하다. 과거에도 영국은 도서관학교육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을 연중에 받아왔지만 최근에 와서 이러한 협력태세가 더욱 긴밀해져 가는 경향에 있다. 영국의 각대학 도서관학과의 교수진은 그대부분이 미국에서 도서관학 석사나 박사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영국의 도서관학 교수들의 미국 도서관학에 대한 평가는 영국보다 약간 높다(slightly high)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sup>8)</sup> 이렇게 도서관학교육도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에서 실시되고 있고 전문적 자격취득도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어렵지만 영국의 도서관인들의 고충도 있다. 그것은 최근에 와서 심하게 논의되는 바이지만 그들에 대한 보수가 적다는 점이다. 그들이 지불한 노력에 비하여 그 대가 즉 educational return이 적다는데 대한 불만이다. 그들의 사회적 명예와 직업계층은 높기는 하나 물질적 혜택이 적다고 불평한다. 사회보장 제도가 철저하게 실시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의 도서관인들의 그것과는 사정이 다르지만 이러한 불만은 이제 어떤 조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도서관협회는 그동안 도서관인들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도서관인들의 자질향상에만 그 노력을 경주하고 그들의 물질적 보수의 증가에 대하여 태만했다 는 비난을 받고 있다.

8. 필자가 1965년 영국에 갔을 때 만난 교수들이 이렇게 대개 일치된 표현을 쓰고 있었다.

오랫동안 실시해온 영국도서관협회의 ALA, FLA 자격취득을 위한 시험과목은 아래와 같았다. 이 과목은 동시에 각 도서관학과의 커리큘럼과 대체로 동일한 것은 영국의 전문직양성제도를 볼 때 수긍할 수 있는 일이다.

1. 영문학사
2. 도서관조직관리의 원칙
3. 분류와 목록의 원리
4. 참고자료
5. 분류목록의 실제
6. 서지학
7. 문서재생
8. 독서지도
9. 주제별서지
10. 도서관과도서관학사
11. 정보과학(정보의 처리와 그 전달)
12. 아동과 청년에 대한 봉사
13. 특수도서관(병원, 법률)
14. 도서관의 운영과 기록의 관리
15. 고문서와 공문서 처리
16. 각 시대별, 주제별 서지
17. 자료 선택
18. 초록법, 색인법

그외에 과학사 미술사 등 40여개의 과목이 마련되어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다 이수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적으로 한다. 협회자격시험인 경우에는 기본자격에 따라 몇가지가 면제되었다. 영국의 도서관협회가 거의 독재적 수법으로 이와 같은 제도를 1885년이래 계속시키고 있는데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 있거니와 특히

도서관학교측과 영국 도서관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Aslib<sup>9)</sup>의 반발을 받았다. Aslib의 주장은 협회가 공공도서관을 위한 도서관인에게만 치중하고 특수전문도서관을 비롯한 관중별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무관심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sup>10)</sup> 이와 같은 끈질긴 저항을 받고 있던 협회는 드디어 1964년에 협회의 새로운 Syllabus를 내 놓았는데 2년간의 학교에서의 전문교육이 도서관인양성의 정도(正道)라는 것과 도서관의 이론과 기술도 도서관학교에서 교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마침내 굴복하여 이제 협회의 독재적 자세가 붕괴되어 가기 시작했다. 따라서 정규도서관학교인 London 대학의 도서관학과 졸업생을 제외하고는 전원 협회의 1단계 시험을 치루워야 하던 것을 1964년 이후 이 1단계 시험은 도서관학과 학생들에 있어서는 모두 면제되었다. 이것은 영국 도서관계의 오랜 논쟁의 씨였던 교육중시파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1964년 새로 개정된 자격시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부시험(초급등록시험) 기본과목

1. 도서관과 지역사회
2. 도서관 조직과 관리
3. 지식의 조직
4. 문헌관리와 문헌봉사

이 1부시험은 각 도서관학과 졸업생에게는 면제된다.

#### 2부시험(중급시험) 선택과목

A 군에서 1과목 B. C. 군에서 1과목 이상을 선택케하여 합계 6과목이며 과목마다 3시간 시험이다.

A 군 학술도서관과 기타도서관, 전문도서관과 인포메이션 센터,  
공공도서관

9. Association of Special Libraries and Information Bureau. 1925년 결성 1927년 법인체가 되었다. 영국의 도큐멘테이션 센터의 구실을 담당하고 있다.

10. Shigeomi Takashi. *Improvements on Education for Librarianship*. The Library World, No. 114, pp. 215—216.

B군 분류이론, 목록이론, 도서관사, 정보처리, 병원도서관, 문서관리 등

C군 각종전문서지(30종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다)와 주제별도서관<sup>11)</sup>

이 시험에 합격되면 ALA의 자격을 받게 되고 앞에서 언급한 과정을 겪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논문만 제출하여 협회의 심사위원회를 통과하면 FLA가 될 수 있다. 그전에 비해 한결 개방적이고 간소화되었다. 도서관협회의 시험관이나 논문심사위원의 대부분이 현직 도서관학교 교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협회와 교육기관 사이에 미묘한 대립이 있으면서도 교묘하게 조화시켜나가는 것은 영국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1919년에 설치된 London 대학도서관학과 이외에 전후에 생긴 대학원과정의 Sheffield 대학의 도서관학교 그리고 1965년에 발족한 북아일랜드의 Belfast 대학의 도서관학교, 그리고 최근에 탄생한 Strathelyde 대학의 대학원과정의 도서관 학과에서는 졸업생에게 Diploma나 정식석사학위를 수여하며 협회에서는 이것을 협회의 자격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지만 학위를 가진 졸업생수가 증가하고 그 능력도 협회인정자격소유자보다 앞선다는 여론에 따라 협회가 이 이상 전문직자격수여권을 유지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협회의 이와 같은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없어지리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것은 오랫동안 대립하던 교육중시파와 경험중시파의 논쟁에 있어서 경험중시파의 패배를 뜻하는 일이기도 하다.<sup>12)</sup>

## B. 美 國

한국의 도서관학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받고 있는 미국의 도서관학에 대한 설명은 과거에 수 없이 많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해설적 기술은 피하고 그 시대적 추이와 현재의 이슈에

11. *Library Association Year Book*. 1965.

12. Bramley, G. A. *History of Library Education*. London, G. Bingley, 1969. p. 31.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 1. 관내경험시대

Melvil Dewey 이전에 미국의 도서관인 양성은 구라파의 다른 나라의 경우와 같이 직공적훈련에 의하여 추진되었다. 즉 약간의 기본교양을 지닌 사람이 도서관에 취직하여 실지로 경험을 쌓고 훈련을 받음으로서 도서관인이 되었다. 마치 양복기술사나 구두공의 경우와 같은 것이었다. 1883년 Melvil Dewey가 오랜 구상끝에 미국도서관협회 연차총회에서 도서관직을 양성하는 정규 대학과정의 도서관학교의 설치에 대한 자신의 신념과 계획을 처음으로 피력했을 때<sup>13)</sup> 이 안을 정면으로 반대했던 Walliam Pool은; “학교에서 받은 교육을 기초로 하여 도서관안에서 실제로 일함으로서 경험과 기술을 습득케 하는 것이 유능한 도서관인을 양성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훌륭하게 운영되는 도서관보다 더 좋은 양성소는 없다<sup>14)</sup>”라고 말했다. 이것은 그 당시의 미국의 도서관인 양성이 관내훈련시대였고 Dewey에 의하여 이것이 무너져갈려는 과도기였음을 알 수 있다.

### 2. 기술편중시대(Dewey 시대)

1887년 1월 5일 Dewey의 오랜 꿈이 실현되어 마침내 세계 최초의 도서관학교가 Columbia 대학내에 “The School of Library Economy”이란 명칭으로 발족하였다. 도서관학에 대한 Dewey의 사상이 이 학교의 교육방법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Dewey시대의 도서관학교의 특색은 한마디로 말하여 도서관 기술편중교육이었다. Dewey의 관심은 분류표나 목록형식이나 스스로 고안해 낸 도서관 업무 처리를 위한 기능적인 수법 등이었고 도서관인들의 일반적인 교양이나 다른 학문과의 관련성 같은 것에 대하여는 무시하는 태도를 취해 왔다. 다시 말해서 대학 전체의 연관성에서 도서관학교가 운영되

13. 1883년 8월 Buffalo에서 개최되었던 ALA 제6회대회.

14. Shigeomi Takashi, Op. Cit. p. 217.

었다기 보다는 차라리 공공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연구소(Institutes)에 부설되는 형식이였다. 1889년4월에 Dewey가 뉴욕주 수도인 올바니(Albany)에 있는 뉴욕 주립도서관관장으로 전출되었을 때 Dewey가 교장으로 있던 Columbia 대학 도서관학교도 서슴치 않고 Dewey를 따라 Albany로 옮겨가서 뉴욕주립도서관의 일부에 수용되어 그 이름도 뉴욕주립대학도서관학교로 고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sup>15)</sup> 또한 도서관학교 교수들도 도서관 실무에 대한 기술습득의 정도에 따라 임명되었다. 이와 같은 Dewey의 독주에 대하여 최초의 부레이크를 건 것이 1923년에 발표된 유명한 Williamson Report였다.

### 3. 체계화시대

1926년4월에 Charles C. Williamson 박사가 Columbia 대학 도서관장 겸 도서관학교장에 임명되었다. 그 보다 앞서 1923년에 Williamson 박사는 도서관학에 있어서의 Dewey 주의에 대하여 철저한 비판을 하였다. 이것이 유명한 Williamson Report였다. 그 내용은 첫째 지나친 도서관에 있어서의 기술편중에 대한 비판이며 또 도서관학이 고립된 상태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대학전체교육의 범위 안에서 정당한 위치를 차지해야 할 것이며 다른 학과와 유기적인 관련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도서관학교는 단지 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는 기술만이 강의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은 넓은 일반교양을 배경으로 하여 다른 학문적영역과 밀접한 접촉을 가지며 문헌시설 학자들과의 접촉교류의 기회를 빈번히 가짐으로서 대학사회의 고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역설하였다. 그럼으로서 진보적인 도서관 활동의 방향을 모색하고 그 기능과 사회적가치를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어떠한 도서관학교도 공공도서관 안에 부설될 수 없으며 반드시 대학내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Dewey 주의와 그의 태도

15. 그후 1926년에 다시 Columbia 대학으로 복귀하여 The School of Library Service가 되었다.

에 대하여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였다. 이리하여 Albany에 있던 Dewey의 도서관학교는 폐쇄되고 다시 Columbia 대학에 폐쇄된 뉴욕주립대학 도서관학교와 뉴욕시립공공도서관부속도서관학교<sup>16)</sup>를 합병하여 Williamson 박사를 교장으로 하여 The School of Library Service가 발족되었다. 이 학교는 Dewey 사상에 반기를 들었던 Williamson 주의에 의하여 교육이 추진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Williamson 주의가 Dewey 주의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거나 180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Williamson 시대나 또 그후 오늘날까지 미국의 도서관은 다분히 Dewey 사상을 계승하고 있는 면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Williamson 주의는 Dewey 주의를 수정 보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Dewey의 도서관학 교육에 대한 비판은 사실은 Williamson 이 처음은 아니다. 1887년 8월에 Thousand Island에서 개최되었던 ALA 9차총회에 제출된 위원회의 Columbia 대학 도서관학교에 대한 보고서에도 이미 이와 같은 비판이 보인다.

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도서관학교가 빠지기 쉬운 결점의 하나는 학생들이 기술적방면을 지나치게 중요시하고 도서관에서 가장 필요한 봉사정신이나 모든 사람에게 성실하게 대하고 도서관으로 하여금 교육활동의 하나의 중심시절로 만들고자 하는 기개를 터득할 수 없다는 점이다…….”

Columbia 대학 도서관학교의 파업수행에 있어서 예술적 정서가 결핍되어 있는 것 같고 대체로 열광적인 기분이 보인다……”

이 보고서에 대한 Dewey 자신의 수기는 Dewey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적절한 자료가 될 것이다. Dewey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정력을 낭비하는 열광적정신은 이것을 경계해야 하지만 동시에 학

16. 1911년 Carnegie Corporation of New York의 재정적 보조로 뉴욕공공도서관내에 설치되었다. 1926년 3월에 뉴욕시립공공도서관관리위원회는 새로 발족하는 Columbia 대학 도서관학교에의 이관을 결의했다.

생들앞에 전개되고 있는 생애의 대사업에 대하여 그들의 열의를 보여 주어야 한다. 우리는 학생들의 건강에 유의해야 하지만 학생들이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각성적정신을 가지고 졸업해 나가는 것을 우리들의 최대의 수확이라고 믿고 있다. 우리는 도서관학교가 동적기관으로 보며 결코 정적기관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 수기에서 Dewey가 말하는 각성적정신(覺醒的精神)이라던지 동적기관(動的機關)이라는 용어는 Dewey의 사상을 단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1956년에 설치된 연세대학부설한국도서관학교와 학부 대학원 그리고 사서교육과정이 실시될 때의 그 열광적 기분 다소과열된 열성 그 극성스러울 정도의 분위기를 회상할 때 이것이 1887년 Dewey가 시작한 최초의 도서관학교의 그 분위기와 일맥상통한 것을 느낄 수 있다. Dewey의 사상은 한국에서도 계승되었다.

Williamson 시대이후 미국의 도서관학이 학문적체제를 구축해 나간 것은 석사학위를 주게 된 것, 그리고 박사과정이 속속 생겨난 것 1933년 Chicago 대학도서관학교 교수 Pierce Butler의 “An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의 발간 그리고 전문학술잡지 Library Quarterly 또 Library Trends 등의 발간 등에 의하여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미국도서관협회의 노력은 지대한 것이 있었다.

#### 4. 정보과학 시대

미국의 도서관이 다시 하나의 발전적인 변신을 강요 당하게 된 것은 2차대전 이후의 일이다. 1950년대를 기점으로 도서관과 도서관학분야에 하나의 이슈로 등장한 것은 정보과학 이론 바 도큐멘테이션의 대두다. 이런 사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사람에게 의하여 여러번 언급되었음으로 여기서는 생략하거니와 1960년대부터는 미국의 각 도서관학교의 커리큘럼에 정보과학과 정보처리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도서관의 기계화현상이 진전되었다. 현재 미국의 각 도서관학교는 이 커리큘럼

편성에 있어서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정보과학을 커리큘럼의 주축으로 하는 급진파와 전통적인 도서관학과 새로 대두된 정보과학을 적절하게 안배하려는 절충파와 전통적인 도서관학을 여전히 커리큘럼의 주축으로 삼고 정보과학을 보조적위치에 놓고자하는 전통파가 있다. 이 세가지 사상은 저마다의 근거와 이유가 있으나 대세는 이미 정보과학을 가볍게 볼 수 없겠음 되어 가고 있다. 학교명칭도 The School of Library Science에서 The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로 바뀌워지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점차로 커리큘럼 속에 정보과학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만은 사실이다. 미국에서는 비교적 절충적인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는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의 도서관학교의 커리큘럼과 전통파에 속하는 University of Hawaii의 그것과 비교해 보기로 한다. ( )은 학점수

※ The Department of Library Science,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1968—1969)<sup>17)</sup>

#### 1. Introductory Courses in Librarianship

History of Books and Libraries (3)

Basic Information Sources and Services (3)

Introduction to Technical Services in Libraries (2)

The Library in Society (2)

#### 2. Organization of Library Materials

Descriptive Cataloging (2)

Subject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2)

Advanced Cataloging (2)

Advanced Classification (2)

Indexing and Abstracting (2)

17. *Graduate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1968—1969) Washington.. C.U.A. 1968. p. 86.

- Automation of Library Services (2)
- Library Systems Analysis (2)
- Reference and Bibliography—Humanities (2)
  - “ —Social Science (2)
  - “ —Catholic Literature (2)
  - “ —Science and Technology (2)
- Government Documents (2)
- Medical Literature and Librarianship (3)
- 3. Administration
  - Principles of Library Administration (2)
  - School Library Administration (2)
  - College and University Library Administration (2)
  - Theological Seminary Library Administration (2)
  - Special Library Administration (2)
  - Public Library Administration (2)
- 4. Book Selection
  - Principles of Book Selection (2)
  - Library Materials for Children (2)
  - Library Materials for Adolescents (2)
  - Book Selection for Adults (2)
  - Storytelling (2)
  - Survey of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Literature (2)
  - Pro-seminar: Research Methods in Librarianship (2)
- 5. Seminar
  - ※ School of Library Studies, University of Hawaii(1970—1971)<sup>18)</sup>

---

18. *General Information and Catalog*, University of Hawaii Bulletin, Manoa Campus (1970—1971)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1970. p. 338.

- Bibliography and Reference Sources (3)
- Advanced Reference Sources (3)
- Basic Cataloging and Clasification (3)
- Advanced Cataloging and Classification (3)
- Social Function of Libraries (3)
- Building Library Collection (3)
- Government Documents (3)
- Audio-visual Service in Libraries (3)
- Management of Library Operation (3)
- Administration of Libraries (3)
- Science and Technology Literature (3)
- Business and Economic Literature (3)
- Special Libraries (3)
- Literature Searching and Documentation (3)
- Reader Services (3)
- Reading Materials for Children (3)
- Reading Materials for Youth (3)
- Service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3)
- School Library-Media Center Problems (3)
- Traditional Literature and Oral Narration (3)
- Special Topics in Librarianship (3)
- Field Seminar (3)
- Administration of Libraries in Asia (3)
- Asian Reference Sources (3)
- Technical Services for Far Eastern Collection (3)
- Seminar in Library Development (3)
- International Publishing and Bibliography (3)

또한 가장 급진적인 학교인 California 대학 도서관학교의 커리큘럼과 비교해 보면 미국의 도서관학교육의 추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University of California, School of Librarianship(1971—1972)<sup>19)</sup>

Forms and Movements of Publication (3)

Development of the Books (3)

Origins of Printing and Publication in Europe (3)

The Behavioral Study of Scientific Information Flow (3)

Government Publication (3)

Scientific and Technical Literature (3)

Foundations of Organization of Knowledge (4)

The Analysis of Contents (3)

Introduction to the Information Sciences (3)

Formal Techniques for Intellectual Access (4)

Measures of Retrieval Effectiveness (3)

Libraries and Information Agencies (3)

Data Processing for Libraries (3)

Survey of Library Automation (3)

이외에 일반적인 도서관학 강좌가 마련되어 있다.

#### N. 韓國의 圖書館教育의 坐標

한국의 도서관 전문직양성을 위한 도서관학교육의 현실적 고민과 세계의 도서관교육의 추세를 감안할 때 한국의 도서관학교육의 바람직한 좌표를 설정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공간으로도 이제 그 시기에 이르렀다. 한국 도서관학의 역사적 배경이나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많은 서적이거나 논문이 발표되었으므로 여기서는

19. Bulletin of Library School, University of California (1971—1972)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한국의 도서관인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그것이 세계적시야에서 훈련되어야 하겠다는 입장에서 주로 커리큘럼의 편성에 대하여 사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 A. 대학 학부과정의 커리큘럼<sup>20)</sup>

##### 1. 연세대학교

1학년에서는 도서관학전공과목은 전무하며 다만 2학년에서 다음과 같은 보조적 기초적 과목을 이수케 하고 있다.

초급일보도서	(6)
한국전적해제	(3)
도서관학원론	(3)
동양전적해제	(3)
미술감상	(2)
기독교개론	(3)

그리고 3학년에서는

분류와 목록	(6)
도서관 조직과 관리	(3)
영서강독	(3)

3.4학년에 걸쳐서는

도서와 인쇄사	(3)
고서와 특수자료	(6)
고급일본도서	(6)
일서특강	(3)
사회과학서지	(3)
한서강독	(6)
대학도서관봉사	(3)
영서강독	(3)

20. 任鍾淳, Op. Cit. pp. 77--84.

영서특강	(3)
분류편목특강	(3)
인문과학서지	(3)
자연과학서지	(3)
도서관봉사의 특수문제	(2)
학교도서관 봉사	(3)
공공도서관 봉사	(3)
비책자자료	(3)
실 습	(1)
일서특강	(3)
영서특강	(3)
보 건	(2)
2. 성균관대학교	
1학년에서	
한 문	(4)
원서강독	(3)
도서관개론	(3)
2학년에서	
분류와 목록	(3)
참고업무	(3)
도서관사	(3)
원서강독	(3)
초급일본도서	(3)
아동도서	(3)
고문서강좌	}
미 술 사	
음 악 사	
	(3)

3학년에서

고급분류목록	(3)
도서관조직관리	(3)
도서선택	(3)
서지학개론	(3)
중급일본도서	(3)
자료조직연습	}
근대한국주제별사료	
인문과학서지	
사회과학서지	
학교도서관경영	
고급일본도서	
한국서지	(3)
중국서지	(3)
비도서자료	(2)
대학도서관경영	}
자연과학서지	
고서목록법	
도서관특강	
시청자자료	
공공도서관경영	
Documentation	(3)

이 표는 최근에 발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러 수정되어야 하겠지 만 대체로 한국의 현행 도서관교육의 교과내용을 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외에 중앙대학과 이화대학의 교과과정표가 있으나 내용적으로도 대동소이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한다. 미국의 그것과 비교할 때 세가지 유형중 가장 전통적인 커리큘럼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도서

관학의 역사가 짧고 도서관의 발전이 저조할 뿐더러 도서관인들의 사회적위치가 정립되지 못한 한국의 현실정도로 보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각대학의 교과과정에 대한 논평은 하지 않고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의 현재의 도서관학 커리큘럼은 세계적인 경향에서도 낙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일선 도서관의 현실적 요구에도 응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도서관을 발전시키는 요소중 가장 중요한 것이 도서관인들의 자질과 그 활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도서관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것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 B. 원칙과 개요

### 1. 교양과목의 중시

한국의 대학학제상 도서관학과 입학자격이 다른 모든 학과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도서관인의 기본자질을 풍부히 하기 위하여 교양과목을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일반적인 교양과목 이외에 1,2학년에서는 전적으로 기본과목을 이수케 하여 높은 바탕에서 도서관이 이수되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학 자체의 학문적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에 아니라 도서관학의 성격상 이 교양적 배경이 요구된다는 것은 대학도서관이나 특수도서관에 근무한 사람이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일이다. 문학개론, 문학사(한국문학, 세계문학), 문화사, 철학개론, 자연과학개론, 미학개론, 법률, 경제학개론 등이 이에 속할 것이다. 이러한 과목이 대학 전반적인 교양과목중에 편성되어 있기는 하나 도서관학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더 깊은 지식이 요구된다. 연세대학이나 성균관대학에서 하는 미술 음악감상 같은 과목의 설정은 현명한 일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도서관학을 대학원과정에서 1년 내지 2년으로 이수시키는데 한국에서 학부 4년동안 이수한다는 것은 무리며 또 할 수도 없다. 도서관학은 그 성격상 어떤 학문이든 다 전공과목이 될 수 있다. 법학통론이 도서관

학과와 1,2학년의 전공과목이 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다면 그것은 도서관학의 본질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2학년 때에는 필요하면 3,4학년에서도 가능한 한 위에서 말한 기초학문이 철저하게 이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서관인이 상대로 하는 인사는 각 분야의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2. 외국어의 강화

한국의 도서관장서의 40%가 한국어로 된 자료이며 일본어가 30%, 영어가 20%, 그 다음이 한문 독일어 불어 등으로 되어 있다.<sup>21)</sup> 이러한 실정을 고려할 때 도서관실무를 담당할 수 있는 도서관인의 어학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어학의 습득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현행 커리큘럼에서 이수케 하는 외국어 이수시간을 가능한 한 증가시켜줄 필요가 있다. 일선 도서관의 책임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주당 외국어시간을 몇시간만 더 넣어주면 좋겠다고 한다. 영국의 도서관협회에서 시행하는 FLA 자격시험에 두가지의 외국어의 습득이 요구되는 것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 3. 서지의 중시

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것 즉 정보원(Information Source)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도서관인의 기본적 조건이다.

과목의 명칭이 무엇이던 그 방법이 어떻던 간에 각종 참고자료를 비롯한 서지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지식과 그 이용법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서지부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릴 필요가 있다. 책에 대한 것과 정보원에 대한 지식 없이도 도서관에 근무한다면 그는 도서관기술자는 될지라도 진정한 도서관인이 될 수 없을 것이다.

## 4. 도서관행정학의 개발

중전의 도서관 조직 관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도서관이 하나의 사회 적기관이라면 도서관자체의 행정 경영학적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

21. 발전도상국의도서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70. p. 69.

한 일이다. 도서관장으로 도서관 전문직보다 행정학을 이수한 사람이 더 쓸모 있다는 아이로니한 의견을 피력하는 학자도 외국에는 많이 있다.

#### 5. 정보과학의 도입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 이 점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상식화된 것이기는 하지만 도서관의 활동과 유리된 면에서 다루워지는 것에 대하여 경계해야 한다. 크게 보면 도서관봉사 자체가 하나의 도큐멘테이션활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의 깊게 한국의 도서관의 발전과 보조<sup>咖啡</sup>마추워 나가야 할 것이다.

정보과학에 대하여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한국의 도서관의 기능이 다양해지면 필연적으로 이 문제가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대학 도서관학과에서 이런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각급 도서관이 자체정비와 발전을 기하고 도서관협회가 정책적으로 절충 노력할 때 그리고 한국에 경제가 발달할 때 한국의 도서관학과 도서관은 바람직한 좌표를 찾을 것이다. 정보검색의 요구가 심화되고 대량화 해결 때 한국의 도서관에 컴퓨터가 도입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 6. 도서관학협회의 활동

4개 도서관학과와 2개의 특수과정의 교육자의 협의회가 구성되고 협력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커리큘럼 문제 뿐만 아니라 자격증 문제 대우 등에 관하여 단체적인 유대가 필요하다. 이 단체에서는 한국의 도서관학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가 토의되고 결정되어 객관적인 영향력을 구사해야 한다.

한국의 도서관학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단체는 현재로서는 없다.

도서관학 교육에서 해결해야 할 긴급한 문제가 지금 너무도 많다.

One Aspect of Library Science in Korea  
with World Trends of Librarianship

Se-ick Kim\*

〈ABSTRACT〉

Last twenty years since the introduction of library science as a new scholarship to Korea are considered as a period of imitation and wander. We are supposed to try relevant changes in library education to settle it down and to keep up with world trends in Korea.

This paper discusses development and status quo of curricula in foreign countries and tries to show a guide for the library science field in Korea. The writer makes recommend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curricula for Korean library schools.

---

\* Professor, Library Science Dept., Ewha Womans University.